

火難 민심 달래기...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검토

윤 대통령 지원책 강구 지시 당정 재원 마련 대책 등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취약계층뿐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정부의 난방비 추가 지원안이 마련되는 대로 조만간 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난방비 급등과 관련해 중산층 지원책도 강구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며 "원래 내일모레(2월 2일) 당정 협의회가 준비돼 있었지만, 정부 측 준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난방비 급등에 따른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

문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부의 소극적 정책으로 무겁고 힘든 짐을 물려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와 당은 난방비 급등 문제를 최선을 다해 풀겠다"며 "정부는 추운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을 늦춘 이유에 대해 중산층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원성이 안 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하라 했는데 재원 대책이 아직 덜 마련되고 중산층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에 대한 결정이 안 된 걸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범위 확대를) 당이 결정해서 (정부에) 강요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걸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회의를 조기 개최해 1천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제기하는 등 긴급 처방을 내렸으나, 2월에도 난방비 요금이 급등하는 등 '난방비 대란'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경제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 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가운데) 의원이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수 남진(오른쪽), 배우 선수 김연경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기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 대통령 "혁신적 프로젝트로 UAE 300억불 투자 화답해야"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전 부처 산업부화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1일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투자 관련해 "우리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투자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발굴해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투자는 형제 국가인 UAE 측이 우리를 신뢰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지난 14~21일 윤 대통령의 UAE·스위스 순방을 계기로 UAE로부터 300억 달러(37조 원)의 투자 약속을 받고 61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 48건을 체결한 바 있다.

제3차 수출전략회의를 겸한 이 자리는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투자금 활용 등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300억 불 투자 약속"에 대해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은 실질적 합의"라며 "투자 규모 면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아주 압도적"이라고 평가했다.

민관 부문에 걸친 48개 MOU에 대해서도 "아직

금액이 미정인 투자 MOU가 많기에 실제 투자 규모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부처 중심의 UAE 투자협력 위원회, 공공-민간-투자기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협력 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한편, 앞서 구축을 지시한 '한-UAE 투자 협력 플랫폼'을 통해 UAE 측과 신속한 협의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첨단기술이 패키지로 운

영되는 블록화된 경제 경쟁에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이 되어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 부처의 산업부화'도 재차 강조했다.

순방 기간 '1호 영업사원'을 자임했던 윤 대통령은 "혁신의 최전선에서 우리 기업들이 닦고 닦은 신발로 뛰게 할 수 없다"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의 영업사원도 하고 기획사원도 되어 한다"고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남진 "김기현 몰라...당혹스럽다"

김 SNS에 "꽃다발 준비해 응원" 남진 "갑자기 나타나 사진 찍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배우 선수 김연경·가수 남진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며 이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설명을 달았다가 이들 중 한 명이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김연경·남진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어제는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보냈다"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고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그러나 남씨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인

7~8명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난 자리에 김 의원이 갑자기 나타나 2~3분 가량 만나 인사말을 나눴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며 "김 의원이 들고 있는 꽃도 그쪽에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씨는 또 "김기현 의원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가 올린 사진 때문에 고향 사람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다. 난 정치적 색이 없는데 이런 일에 휘말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김연경 측 관계자도 이 상황에 대해 "가수 남진 씨가 인터뷰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31일 오후 국회 한정치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갔고, 남진·김연경 두 분이 있었고, 꽃다발을 쥐어 받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힘 당대표 본경선 후보 4명으로 컷오프

국민의힘은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4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번 전대 후보자가 당 대표 4인, 최고위원 8인, 청년 최고위원 4인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내달 2~3일 등록한 후보를 대상으로 5일 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할 다음 8~9일 책임당원 6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위원은 또 당 선관위가 전날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에게 당규에 따라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다만, 당 선관위는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개최한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이 당규 위반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았다고 한 위원은 전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유승민 국힘 당대표 불출마... "때 기다리겠다"

"민주공화정 지키는 소명 다할 것"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 전당대회에 불출마한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겠다"며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 우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 직전인 이날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센 이주로 비판하면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언급한 '폭정' 역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새로운 길'을 강조하면서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혀 향후 그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